

Living the Lotus 7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4
VOL. 226



Rissho Kosei-kai of Phnom Penh



Living the Lotus
Vol. 226 (July 2024)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영원한 생명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



인생은 메들리 릴레이(Medley Relay)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해 오신 임제종(臨濟宗)의 마츠바라 타이도(松原泰道:1907-2009) 선생이 미수(米壽)를 맞이하여 지은 시가 있습니다.

‘팔십 년이 넘도록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오늘의 행운을 누리는구나’

선생은 우란분제(盂蘭盆齋=백중)에 연관된 강연 속에서 이 시에 이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나이까지 이리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어머니에 대한 사모와 감사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란분제의 시기가 되면 유난히도 이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내년이면 이 시를 읊으셨던 선생님과 같은 나이가 되는 저 뿐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선생의 저서에 있는 다음 구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결승점이 없는 메들리 릴레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수억 년을 이어온 생명의 메들리 릴레이의 한 주자로서 열심히 달려서 다음 주자에게 baton을 넘겨 주는 것입니다’(<마츠바라 타이도(松原泰道)의 설법인생 >/교성출판사)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때를 ‘인생의 결승점’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츠바라 선생은 인생을 ‘결승점이 없는 메들리 릴레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거기가 생명의 결승점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구절에,

저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달리는 거리도, 달리는 방법도 제각기 다른 인생이지만, 누구나 모두 위대한 생명의 영위 속의 한 구간을 열심히 달리는 릴레이 주자이며, 생명의 바통은 그렇게 영원히 이어진다-이렇게 받아들이면 상쾌한 기분마저 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

교토(京都)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던 히라사와 코우(平澤興)선생은, 수 억년에 이르는 생명의 영위를 좀 더 구체적인 생명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죽음이란, 대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본래의 대자연으로 돌아가 대자연의 일부가 되고, 다시 대자연의 건설계획에 참여한다-이것은 “무(無)”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자연의 창조에 참가하는 것이다’(<살자, 오늘도 기쁘게>/치치(致知)출판사)

이 말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외로움이나 슬픔 등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생명은 죽음을 경계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큰 강과 같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대자연으로 귀환하여 ‘영원한 생명’을 계속 살아간다는 장대한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지않아 죽음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자기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존께서 진리를 탐구하신 동기도 모든 사람을 생로병사의 고(苦)로부터 구제하고 싶다는 바람에 따른 것이므로,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존께서는 고심 끝에 우리들 인간이 그러한 고통과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무상(無常)을 비롯한 진리를 근거로 한 사제(四諦)·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는 고(苦)를 받아들이는 방법과 실천 덕목-을 설하여 전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겨자씨의 비유로 알려진, 어린 아이를 잃은 기사 고타미는 석존을 만나 구제받은 것에 대해 “저는 여덟가지 실천법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길, 불사(不死)에 이르는 <길>을 실제로 실천하고 체득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고백에서 궁금한 것은 ‘불사’라는 말입니다. 석존께서도 ‘경집(經集:숫타니파타)에서 마음을 일구면 그 사람에게에는 ‘불사의 열매’가 주어진다고 설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불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죽음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실마리 중에 하나로서, 다음 호에서는 이 ‘불사’에 관하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view

5월호에 이어 7월호에서는 2024년3월 입정교성회 학림을 졸업한 청년의 인터뷰를 전달합니다.

카스트 제도로 인한 차별과 맞서는 사람들과 함께, 보다 좋은 인도 사회를 향하여

인도·붓다가야 법좌
뷔시와짓 고다마(Vishwajeet Gautam)

학림에서 지낸 2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만, 일본에 막 왔을 때에는 말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당황하는 일이 많았으며, 저는 성격 또한 긴장하는 타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렵고 서툴렀었습니다. 하지만 학림에서는 사회자 역할 등의 받게 되는 일이 많았으며, 그때마다 저는 밀려오는 불안과 긴장으로 ‘이건 내가 해 낼 수 있는 역할이 아니야’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뷔시와짓이라면 할 수 있어” “걱정하지마, 괜찮아” 하며 강사님과 선배들이 격려를 해줘서 저는 실수를 하면서도 조금씩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를 마치 가족처럼 소중히 대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2년 동안의 학림 생활을 즐겁게 지낼 수 있었으며, 지금, 감사와 감동으로 가슴이 벅칩니다.

학림에서 불교와 법화경을 깊이 연구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큰 배움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감동했던 것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연기관’입니다. 저희들은 평소 어떤 문제나 곤란한 일이 일어나면, 자칫 나 이외의 상대방이나 주위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 책임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눈 앞의 일어난 일을 좋은 연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인간관계로 말하자면 연(緣)인 상대방은 바꿀 수 없지만 인(因)인 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해 지는 것입니다.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모두 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터뷰 하는 뷔시와짓씨

졸업 연구 발표회에서는 『인도 가스트 제도와 불교의 암베드카(Dr. Bhimrao Ramji Ambedkar(1893-1956)) 박사의 역할』이라는 테마로 발표하였었습니다만, 이 테마를 선택한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 신앙을 기반으로 몇 세기에 걸쳐 인도 사회에 뿌리를 내린 신분제도입니다. 인도의 헌법에서는 카스트제도는 위법으로 여겨집니다만, 헌법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 목적이며, 카스트 그 자체는 습관으로서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위 신분에 대한 차별은 뿌리 깊이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립과 분쟁의 원인이 되며 범죄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카스트가 인도에 존재하는 한 나라의 발전도, 평화로워지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



학림 강사님과 동기들과 함께
(법륜각, 왼쪽에서 두번째가 뷔시와짓씨)

학림(學林)은 ‘실천적 불교’와 ‘여러 종교 대화와 협력’을 위한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불교, 법화경에 근거한 전인교육을 통해, 실천적인 불교의 지도자를 비롯하여, 국제 종교 협력, 평화구축 등에 종사하는 국내외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림 영어 홈페이지

고 생각합니다.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층에 속하는 달리트(불가촉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카스트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로 개종하여, 법무대신으로서 인도 헌법의 기초에 공헌한 암베드카 박사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법화경에 설해져 있는 ‘모든 인간은 모두 고귀하고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인간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평등사상과 인간 존중의 가르침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 테마를 선택하였습니다.

귀국 후, 연구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서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는 달리트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달리트는 긴 역사 속에서 동물 가공과 오물 처리 등, 위험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에 종사하며, 사는 곳, 지나 다니는 길, 물을 뜨는 장소, 참배할 수 있는 사원 등, 사회 생활 속에서 상위 카스트로부터 분리되어 왔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읽고 쓰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아동노동에 종사하게 되거나, 구걸이나 쓰레기 수집 등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범죄 또한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리트의 사람들은 지금도 인도 전체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시도 또한 격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도 사회의 차별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 아이들의 교육 지원에 힘을 쏟아 카스트에 의한 차별과 맞서는 사람들과 함께, 보다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변혁을 일으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교와 법화경, 개조님의 가르침, 암베드카 박사의 정신에 근거하여

①카스트에 의해 차별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종교를 존중하기 ②하위 카스트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 ③서로 다른 카스트나 종교간의 교류와 대화 촉진 -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림에서 배운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불교와 법화경 가르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가까운 달리트의 아이들에게 문방구를 제공하고,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함께 게임을 하면서 사귀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아이들은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학림 동료들과 함께 키운 쌀을 수확하며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뷔시와짓씨)

에 대해 배워서 인간적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켓과 축구 등의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다른 카스트간의 교류를 꾀할 수도 있으며, 함께 식림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좋은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입정교성회 붓다가야 법좌 여러분의 협력을 받으면서 조금씩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마음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법화경의 오백제자수기품에 설해져 있는 후루나의 ‘반보주의’가 가장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후루나는 사람들을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인도할 때 철저하게 반보 앞을 걸으며 리드하는 자세를 가졌었습니다. 사람들은 후루나에게 친근감을 느끼면서 그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저도 학림에서 공부한 것을 살려서, 귀국하고 나서는 붓다가야 법좌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며 행동하고, 가능하면 후루나와 같이 반보 앞을 걸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의 꿈을 들려주세요.

인도에는 힌두교를 시작으로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아주 큰 꿈입니다만, 앞으로는 인도 국내에서 여러 종교대화와 종교 협력을 진행하는 활동을 해 나가고 싶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작년, 학림에서 다른 교단 연성회로 교토의 천태종 총본산 히에산 엔라쿠사를 방문했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1987년 8월, 당시의 야마다 에타이(山田惠諦) 좌주님과 개조님이 중심이 되어 ‘히에산 종교 회담’이 개최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협력에 기여하신 개조님의 정열과 행동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계승해 나가면 좋을지 생각하였습니다. 장래에는 종교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나아가서는 종교대화와 종교협력의 발전을 향해, 제가 그 손발이 되어 인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 조금이라도 공헌해 나가고 싶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2024년 3월24일, 자택에서 이루어진 붓다가야 법좌 회원들과 함께한 독경공양에 도사 역할을 받은 뷔시와짓씨



부처님과의 깊은 연(緣)

「부처님과의 연」을 설하는 범화경

입정교성회 개조
니와노 닛교



이번에는 처음 믿는 사람에게 우리들과 부처님과의 「연」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00년 정도 전 중국에서 법화경의 교리를 정연하게 설해 밝히어 「작은 석가」라고 불린 사람이 천태대사 지의(智顛)였습니다. 그 천태대사가 수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악대사 혜사(慧思)라고 하는 고승이 광주(하남성) 대소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천태대사는 전란 속을 필사적으로 뚫고 스님을 찾아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남악대사는 젊은 천태대사를 보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 영취산에서 그대와 함께 법화경을 들었다. 그 숙연(宿緣)이 무르익어 그대는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야」

영취산은 석가모니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산입니다. 「숙연」은 전세(前世)로부터 쪽 이어져 온 인연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마다에타이(山田惠諦) 천태좌주(1990년 당시)와 중국 불교 협의회 회장 조박초(趙樸初)선생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불교인의 선달입니다만, 1987년 여름에 저는 두 스승님과 함께 꼬박 3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법화경 이야기를 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조박초선생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즐겁게 몇 번이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셋이서 법화경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매우 즐겁습니다. 석존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을 때 우리들은 함께 그 설법을 들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지만 잘 생각해보니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된 사람끼리는 전세에서부터 어떤 「연」으로 맺어져 있었던 것이라고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귀의하는 법화경은 「수기경」이라고 합니다. 「수기」라는 것은 석가모니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은 장래 반드시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성불의 보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법화경에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성불의 보증을 주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설해져 있습니다. 또 법화경은 「역접수행의 경」이라고도 합니다. 「역접수행(歷劫修行)」이라는 것은 인간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 수행을 계속함으로써 마침내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에 덧붙여서 법화경은 「부처님과의 연을 가르치는 경」이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과의 깊고 깊은 「연」에 대해 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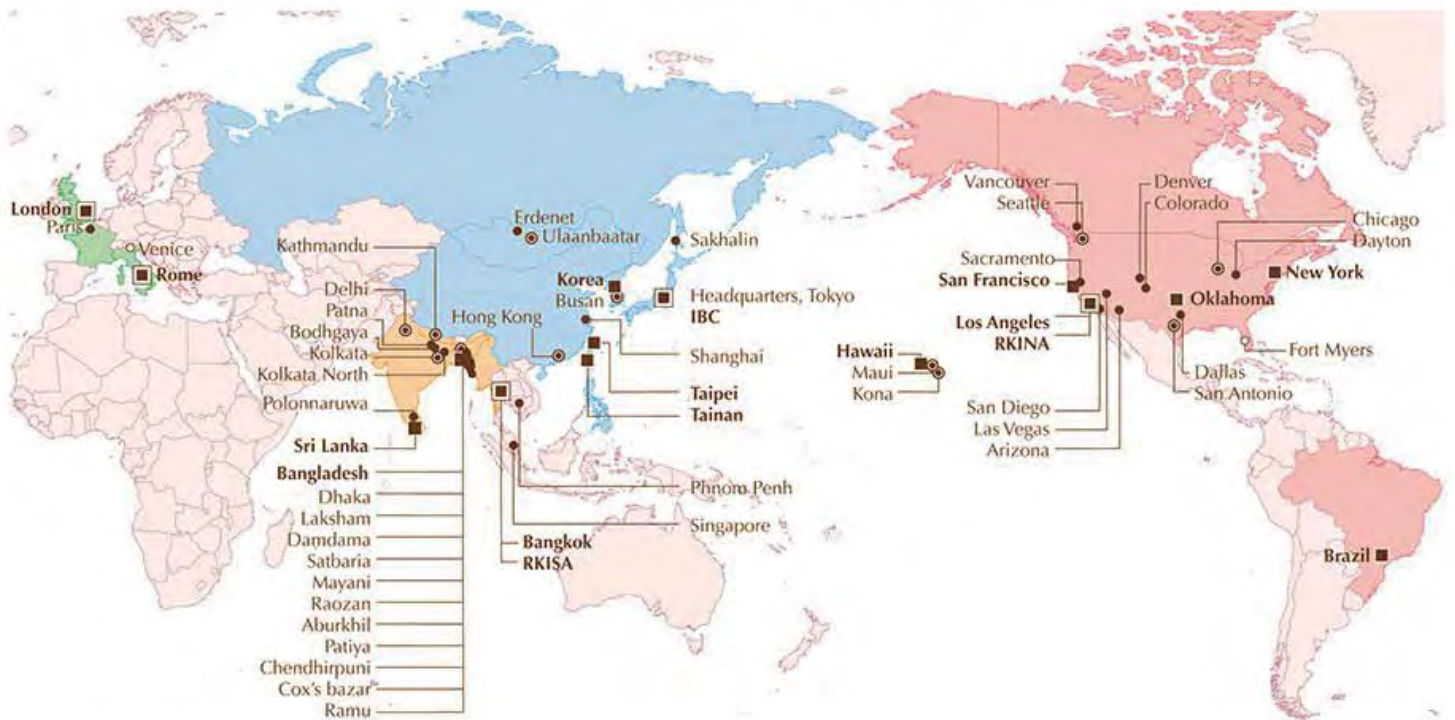
니와노 닛교 평성 법화집1 『보리의 싹을 틔움이라』 p.53-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